

01 교회소식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수많은 사건, 사고, 재앙의 위험 속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과 피난처가 되신다.

02 생명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죄악을 벗어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됨으로 날마다 영을 날아가야 한다.

03 간증

사랑과 은혜, 행복이 가득

감염성대장염, 요로결석, 20년 된 비염을 치료받는 등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04 권능의 역사

“제가 웃고 살 수밖에 없죠~”

잘 걸지 못하는 손녀에 대한 안쓰러움, 잘 못 듣는 답답함, 임신한 아이를 잃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

만민뉴스

제684호 2015년 5월 3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앞에 당신은...?

지진, 태풍, 홍수의 위험에서도 보호받은 성도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시 인근에서 지난 4월 25일 규모 7.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많은 건물이 붕괴되고 여진으로 인해 현재 사망자만 5천 명이 넘고 피해자가 1만여 명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큰 상황이다.

4월 26일, 네팔에 있는 만민선교센터 이해천 담임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무 피해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사시는 성도의 가족과 집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교회 기물도 전혀 파손 없이 온전히 보호받았습니다”라고 전해왔다(사진 우측).

네팔만민선교센터는 카트만두 시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위성도시 랄리푸어 시에 가늘고 높게 지은 5층 건물의 3-5층을 사용하고 있다. 지진 발생 당시, 건물자체가 휘청휘청하며 흔들려 무엇을 잡지 않고는 서거나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네팔은 토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기에 이날은 선교센터에서 170~180명의 성도들이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성도들은 1시간 가량 건물 바깥도로 대피했다가 다시 성전에 모여 오후 예배를 기도회로 대신했으며 저녁 다니엘철야 기도회까지 잘 마쳤다.

이해천 목사는 “이번 지진에서 온전히 보호받는 체험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인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네팔 정부가 신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이후 여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은 작고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빛 가운데 사는 자녀들은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애굽 전역에 열 재앙이 내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상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7월 15일 밤, 초당 48km의 풍속을 가진 슈퍼 태풍 람마순이 필리핀을 강타할 때도 그랬다. 까비테만민교회 건물의 지붕과 연결된 기둥이 바람에 흔들리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조찬형 담임목사는 긴급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했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네팔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네팔 국민의 마음에 쓰린 상처가 남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 보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한다.

다. 그리고 잠시 후 교회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갈 듯 심하게 불던 바람이 갑자기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비가 점차 그쳤다.

날이 밝은 뒤 조 목사는 인근 지역에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뿌리째 뽑혀 여기저기 너부러진 채 이수라장이 되고 주유소 앞의 큰 쇠기둥이 바람에 구부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데 교회는 지붕이 조금 상하고 주차장 담장과 교회 담벼락이 약간 부서진 것 외에는 아무 피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1년 3월, 전 세계인의 가슴을 쓰러내리게 한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지진해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센다이 해안가에서는 마을이 통째로 쓸려나가고 산사태로 사람들이 생매장되는 등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

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누출로까지 이어져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에서 세운 일본 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센다이와 거리상 가장 가까운 야마가타 만민교회는 심한 흔들림과 정전이 있었을 뿐 아무런 피해가 없었고, 다른 지교회들도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만 있었을 뿐 모두 보호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11년 1월에는 큰 홍수로 호주 퀸즈랜드 주 브리즈번 강의 수위가 8미터 가량 차올라 일기예보대로 비가 계속 온다면 수천 가구가 물에 잠길 상황이었다.

이때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호주 디렉터 미카 쿠퍼 박사의 요청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주었고, 얼마 후 폭우가 그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맞닥뜨릴지 모르는 재앙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재앙을 만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부모의 마음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짐짓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을 때 공의에 따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적어도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라는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공의를 지키는 성도들은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뿐 아니라 사건, 사고, 재앙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5)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초신자뿐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직분자들,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해도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적인 비밀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답변하십니다.

영혼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생령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범죄한 아담의 후손도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며 모든 인류는 육의 사람으로 결국은 지옥, 곧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서는 영의 일에 대해 바람에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즉 바람 소리는 듣지만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바람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듯이 영의 세계도 육의 한계 속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니고데모는 결국 변화돼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후에 바리새인들이 비방하는 예수님을 옹호하고(요 7:50-5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 죽으신 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

고 와서 섞었습니다(요 19:39).

2. 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과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 곧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식하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갈증을 해소해 주고 생명을 유지하며 더러움을 씻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악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눈앞에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씻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듯이 영생수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 말라, 버리라.”하신 대로 미움, 시기, 판단, 정죄 등 비진리를 버리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더불어 “하라, 지키라.”하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들을 행해 나가면 마음 안에 진리가 채워지지요. 이렇게 비진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채우는 것이 곧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3.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에 임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행 2:38), 죽었던 영이 살아나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지요.

요한일서 5장 5-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 주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욕과 싸워 이기므로 범죄하지 않고 비진리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할 뿐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시므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죽은 영을 살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버리도록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죽은 영이 살아나 죄를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2:8).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으로 영을 받으며 마음의 죄악을 벗어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과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자 가르치는 선생이며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고자 한 많은 바리새인과 달리 그는 진리에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고 백하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거나 부유해도, 직분이 있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4면에 이어)



“지방간, 감염성대장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이유우스게 형제 (19세, 고3선교회)

작년 12월 11일, 저는 설사와 혈변 현상이 나타나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직검사와 위대장 내시경검사, 소변과 피검사 결과, 크론씨병(만성염증성 장질환)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지요.

12월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 지방간이 있고 감염성대장염이었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과 상담 후 70일을

작정해 아침에 30분, 저녁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영혼육’ 설교를 들으며 노트에 정리했지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으니 주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으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상황이 오히려 매우 감사했습니다.

한편 엄마 이경미 집사님도 만민기도원 오전 예배와 오후 기도회,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하시면서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을 회개 하셨지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 제 몸은 점차 호전됐고, 지난 2월 19일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뒤 급속도로 회복돼 소화도 잘되고 식사도 잘했으며 설사 증세도 사라졌습니다.

3월 말, 서울대병원에서 조직검사, 대장 내시경, 소변, 피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이었지요. 할렐루야!

“손수건 기도로 요로결석이 신속히 치료됐어요” 진교천 집사 (52세, 2대대 10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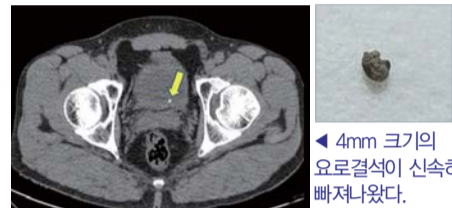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아랫배에 심한 통증과 함께 구토 증세가 있었습니다. 자동응답서비스 (02-830-5320)를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아 통증이 사라졌지요.

그런데 다음 날 오전, 다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저는 오후 6시경,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던 중 아내 류미혜 권사의 도움을 받아 전화로 교구장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았는데, 극심했던 통증이 아내 사라졌지요. 그리고 CT 촬영 검사 결과, 4mm 되는 크기의 결석이 요로 끝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안단물을 마신 뒤 잠시 후

소변을 통해 수월하게 결석이 빠져나왔지요. 할렐루야!



“시력이 회복되고 영적인 눈도 띄어 천국 소망이 넘쳐요” 디아나 모레노 자매 (18세, 콜롬비아만민교회)



5년 전부터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는 글씨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을 따라 2013년 1월부터 콜롬비아만민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예배를 GCN 녹화방송(한국 만민중앙교회의 예배실황)으로 드리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지요.

당회장님께서서는 무조건 축복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

는 비결인 마음의 성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볼 때 눈이 따갑고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듣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2014년 4월,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에 서울에서 이희선 목사님이 오셔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에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는 순간, 저는 온몸

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눈을 떠 보니 멀리 있는 사물이 신기하게도 선명하게 보였지요.

시력 회복으로 모든 것이 밝히 보일 뿐 아니라 당회장님의 저서 『천국』과 『지옥』을 통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도 열어 주시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는 찬양팀의 일원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 소망도 넘칩니다. 할렐루야!

“권능 CD를 보던 중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티야 프라카시 샤르마 (50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작년 12월부터 관절염으로 인한 심한 통증으로 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캄래수)는 척추 종양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러던 지난 2월, 둘째 딸(네하 샤르마)이 ‘델리 국제도시전’에서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일곱 교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를 구입하고 권능 CD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치료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서로 돌아가면서 책들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 또한 권능 CD 안에 담긴 간증들을 대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탄했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몸이 떨리는 체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저는 인도국립병원에 진료를 예약해 놓은 상황이었지만 깨끗이 치료받아 더 이상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지요. 3월 8일에는 온 가족이 델리만민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뒤 아내가 권능 CD를 보던 중 마비된 다리에 감각을 느끼는 기적적인 일 또한 있었지요. 저희 가족은 아내의 치료도 소망하게 됐습니다. 치료해 주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년 된 비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김철진 집사 (56세, 광주만민교회)



2007년 9월, 저는 지인의 전도로 광주만민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어지럼증과 20년 동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술, 담배에 지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동시 화상예배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천국’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

듣다보니 마치 새로운 세계에 온 듯했고, 제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회장님의 간증수기인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한 지 1주 뒤 술, 담배를 끊었으며, 3주 뒤에는 당회장님의 환자기

도를 통해 20년간 저를 괴롭히던 비염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5년 동안 극심했던 어지럼증과 3년 된 고혈압까지 치료 받았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주의 일꾼이 되어 기관장, 구역장, 학생부장, 차량봉사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감사의 달
2015.5.03~5.09

우리의 영혼을 세롭게 하는 방송 GCN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예능 1-5 ■ 축복 7
- 성경적 결혼관 1-2 ■ 선(단편)
- 창세기 강해 53-57 ■ 천국 1-3
- 요한계시록 강해 70 ■ 일곱교회 25
- 3차 영혼육 6-10 ■ 사랑장 16-20
- 공부 잘하는 비결 8-11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1-5

GCN TV설교

- 목자께서 채워주신 공의(이수진 목사)
- 말장이 1 (이미영 목사)
- 축복 (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15 (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1 (정규영 목사)
- 양선 (김수정 목사)
- 친히 이루어주신 그분 (조희희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5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25
- English 8 ■ 옛날 옛적에 9
- 즐거운 요리21 ■ 내 마음의 찬양 9
- 흥겨운 소리 8 ■ 창조와 과학 8
- 모두 드려요 27 ■ 뷰티풀라이프 4

해외성화 프로그램

- 페루 연합대성회 3
- 회상 7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고 계신다. 권능의 역사로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 일부를 발췌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걸지 못하던 손녀가 기도받은 뒤 잘 걸어요” 나란토야 성도 (57세, 몽골만민교회)



저는 둘째 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에 태어난 손녀가 두 살이 되어가는데도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이미 걷고 있는데 아직 걷지 못하니 걱정이 됐지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환도뼈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걷지 못하니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벨트를 착용해 다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벌릴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4개월간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 난살마 집사님이 손

녀를 보고 안타까워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 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몽골만민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 십일조 헌금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다니엘철야 기도 회에도 참석했지요. 두 달간 먹던 약도 끊고 GCN 생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또한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꾸준히 아이 다리에 발라 주었지요.

그러면서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아이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됐습니다. 마침내 2014년 10월, 아이는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올해 3월 말부터는 보호벨트를 착용하지 않고도 잘 걷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안 들리던 왼쪽 귀가 이제 잘 들려요” 박순옥 집사 (67세, 1대대 7교구)



결혼 후, 남편의 심한 구타로 왼쪽 귀의 고막이 터져 늘 진물과 피가 흐르고 두통에 시달렸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다가 결국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권능의 무안단물을 왼쪽 귓속에 바르니 놀라게도 진물이 흐르지 않고 두통도 많이 줄었지요. 작년 12월 31일, 저는 3일 금식을 하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송구영신예배를 위해 교회에 오

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뒤 구토와 설사를 네 차례나 쏟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고 조금 남아있던 두통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안 들리던 왼쪽 귓속에서 묵직한 덩어리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빼보니 죽은 피가 굳어 딱딱하게 뭉쳐 있었지요. 그 뒤 2~3일 동안 귀에서 바람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귀가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들어 이 어폰을 착용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다녔지요. 그 뒤 바람소리마저 사라지고 시원해지더니 전혀 들리지 않던 귀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들리지 않던 왼쪽 귓속에서 굳어진 핏덩어리가 나오고 며칠간 바람소리가 나고 사라지더니 잘 들을 수 있었다.

“자궁각임신이 권능의 기도로 정상이 됐어요” 이경미 집사 (36세, 3대대 32교구)



지난 4월 2일, 임신 사실 확인차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 '자궁각임신'(자궁과 나팔관이 만나는 부위에 수정란이 착상해 생긴 임신)이니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재검사한 결과 역시 같은 진단을 받았지요. 의사는 수많은 혈관이 있는 곳에 착상이 되고 그 부근에 피가 2L나 고여 있어 태아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니 당장 입원해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윤정태 성도)은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평치 못한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이날 오후 금요철야예배에 오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프고 답답했던 배가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면서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재검사한 결과 태아가 정상으로 착상됐고, 하혈은 고여 있던 피가 나온 것이

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5일 만에 놀라운 일을 체험한 남편은 기도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기도받은 뒤 혈종이 제거되고 착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3면)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청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동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생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